

Passion.Connected.
하나된 열정



패럴림픽 마스코트 반다비
Paralympic mascot Bandabi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개최도시 | 평창, 정선, 강릉

2018년 3월 그 순간,
당신은 누구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Para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3.9-3.18

Venues | PyeongChang, Jeongseon, Gangneung

Get your tickets and share the passion
www.PyeongChang2018.com



Family

201803



www.kepco-enc.com

2018년 3월호



Energy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힘.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KEPCO E&C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 04 **K-message** | 제20대 이배수 사장 취임사
- 06 **Focus** | 이배수 신임사장 취임 외
- 10 **청백리** |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외

&And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우리가 만들어가는 KEPCO E&C Family에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 18 **People** | A KNOWLEDGE EXPERIENCE AT KEPCO E&C

Communication 더 현명하게. 더 여유롭게
더 건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과 소통합니다.

- 22 **신성장지도** | 들녘 꼬트머리, 반도의 풍요 - 부안 변산반도
- 28 **Storytelling** | 약 달이는데 쓰이는 물 금강수, 살과 뼈를 찌르듯 맑고 차다
- 30 **기자칼럼** | '왕'이 될 필요는 없지만 '호구'는 되지 말자. '리콜' 이제 소비자 권리이자 의무
- 32 **건강 100세** | 만성 기관지염에 좋은 음식, 기관지와 호흡기에 좋은 음식은?
- 34 **생활과 과학** | 목성 찾아 삼만리, 주노의 탐험
- 36 **Culture** | Festival, Exhibition, Book, Movie
- 38 **KEPCO E&C NEWS** | 2018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개최 외
- 40 **한기표의 청렴윤리** |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 42 **Inside Outside** | 동호회 동정 외
- 44 **인포메이션** | 향초·인센스 스틱 사용 시 실내 공기 오염 우려 있어
- 46 **Poem** | 기차
- 47 **에코포토** | 봄이 오는 다섯 걸음



통권 434호 · 발행인 이배수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울곡동)
발행일 2018년 3월 10일	전 화 054-421-3114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홈페이지 www.kepco-enc.com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이 메 일 business@kepco-enc.com
	인 쇄 화성에스지아이(054-773-7050)

제20대 이배수 사장 취임사

하나된 열망과 의지로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역사를 창조합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기가족 여러분

한기의 최고경영자로서 여러분과 다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한기가 직면한 여러 현안 과제 앞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누구보다도 직원 여러분들의 마음고생이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직원 여러분께 마음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 회사는 '발전소 설계기술 자립'이라는 국가적 소명에 부응했으며, UAE와 아프리카 등 해외시장에서 에너지기술 수출 주역으로서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한기는 기술의 불모지에서 세계적인 기술회사로 성장해 온 저력 있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열망과 의지가 하나로 모아진다면, 현재의 산적한 현안 문제들은 반드시 극복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최고경영자로서 한기의 일원이 된 오늘, 책임과 소명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께 몇 가지 각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에너지전환' 정책을 선도하고 한기의 새로운 성장기회로 만들어 갑시다.

지금까지 '발전소 설계기술 자립과 고도화'라는 국가적 소명에 충실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안전한 나라', '사람이 우선인 나라'라는 시대적 소명에 한기가 부응할 때입니다. '보다 안전한 원자력', '보다 깨끗한 화력발전소' 기술을 개발하는데 또 다시 열정과 의지를 모아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사업에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과 시장 환경에 대응해 나갑시다. 우선 한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한기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중점기술을 선정하여 R&D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에너지신사업을 성장동력의 단단한 축으로 정착시킬 것입니다. 에너지 자립설과 스마트에너지, 미세먼지와 탄소저감 사업에서 한기가 우선적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한기의 기술과 인력을 중심으로 민간의 자본과 마케팅 능력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국회, 시민사회 등 각계의 에너지전환 정책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회사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핵심역량 중심으로 지속성장 기반을 확립하고 전력산업의 해외수출을 전인합니다.

가동원전사업과 원전해체, 사용후연료처리와 원전안전성에 대한 시장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신규원전 건설 중지에도 따른 매출 공백을 최소화해 나갑시다. 화력은 성능개선과 연료전환, 환경설비 분야에 더욱 중점을 둬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해외시장을 통해서도 한기의 성장잠재력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회사 고유의 원전설계 기술력을 기반으로 원전수출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것은 물론, 요소기술의 수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갑시다. 가동중 발전소의 성능개선과 성능향상 사업은 새로운 먹거리로서 한기가 더욱 매진해야 할 해외사업 영역입니다. 소규모 IPP사업 개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조달, 리스크 관리역량 등 경영시스템을 글로벌 수준으로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셋째, 혁신성장을 추동할 성장역량과 경영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원전해체와 소내건식저장시설 사업 등 원전사후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사업화를 앞당기고 한기의 역할도 확대해 나갑시다. 또한 중소형원전 등 미래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도 끊임없이 개발하고 금융조달과 연계한 종합설계 서비스로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여 신재생과 IT 등 핵

심기술 융복합기술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분산형 전원의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도 R&D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조직은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되는 위기와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기의 최고 자산은 인재(人材)입니다. 더욱 체계적인 인재육성시스템을 갖추고 뒷받침함으로써, 인적 역량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한기가족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목표와 과제들은 결국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성취하고 해결하는 노력에 적극 동참할 때에만 비로소 실현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노사가 하나되는 상생협력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현안과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면서 상호 협력을 구하는 노사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직종과 직급, 세대간의 인식차와 문화적 괴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어느 시기보다 절실합니다. 뭉쳐야만 글로벌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 서로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서 한발 더 다가서려는 배려의 문화를 꽃피웁시다. 회사의 모든 경영활동은 합리성과 공정성에 그 뿌리를 두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직원 모두가 자율적인 견제와 청렴윤리 의식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기가족 여러분

저는 사장공모에 지원하면서 3년의 입기동안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공의 역사를 써온 한기의 궤적에 누를 범하지는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영환경이 어려운 시점이기에 고민은 컸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바친 한기에 열정과 애정이 여전히 살아 있고, 꿈과 도전정신으로 충만한 우리 후배들이 함께 한다면, 한기는 새롭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봉사의 마음으로 한기의 재건에 헌신하겠습니다.

한기의 오늘을 만들어 오신 여러 선배님들의 뜻도 명심하면서, 한기의 새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지난 4년여 회사 발전에 헌신하셨던 전임 박구원 사장님께 마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사장 이 배 수

이배수 신임사장 취임

- 에너지전환 정책에 부응하여 기술개발 투자와 사업화 역량 강화할 것
- 해외시장 확충을 위한 경영시스템과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 경북혁신도시의 거점 공기업으로서 지역협력도 적극 추진

이배수 신임사장의 취임식이 2월 13일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취임식은 '한전기술 혁신성장 계획'이라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임기 동안의 목표와 중점 추진 방향을 신임사장이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배수 신임사장은 "에너지전환 정책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며, "기술의 불모지에서 세계적 기술회사로 성장한 저력을 바탕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에너지 기술회사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이배수 사장은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사업의 기술개발 투자와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자력, 화력 등 기존 주력사업의 핵심 사업영역 다변화와 함께 해외시장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수출주도형 사업구조에 부합하도록 경영시스템과 리스크 관리역량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효율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위기와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제도와 의식의 혁신, 체계적인 인재육성시스템을 통한 인적역량 극대화를 다짐했다. 끝으로 이배수 신임사장은 "경북김천혁신도시의 거점 공기업으로서 성장과 도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상생을 선도해나가는 지역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배수 사장은 1954년생으로 연세대 천문기상학과(학사)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대기과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3년 우리 회사에 입사하여 환경기술 분야와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에서 엔지니어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플랜트사업개발처장, 경영기획처장, 마케팅처장, 기획마케팅본부장(임원)으로 재직했다. 이후 삼성엔지니어링(주) 마케팅본부 상임고문과 한국발전기술(주) 부사장을 역임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 자율적인 청렴윤리 활동으로 전년대비 2단계 상승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렴사회 만들기 솔선수범

우리 회사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2등급)'으로 선정되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하여 청렴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2017년에는 중앙행정부처 등 256개 기관이 39개 과제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평가결과는 총 5개의 등급으로 구분되며 2등급 이상은 우수기관으로 분류된다. 이번 평가에서 2016년보다 평가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65개 기관이며 이중 2단계 이상 크게 향상된 기관은 우리 회사를 포함한 27개 기관이다.

회사는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전 평가항목에서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아 2016년 미흡기관(4등급)에서 우수기관(2등급)으로 2단계 상승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회사는 조직내 반부패 분위기를 확산하고 부패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자체점검 노력을 강화하였고, 회사 업무 중 부패 취약분야를 자율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부패발생 소지 차단에 주력하였다.

또한 경영진과 직원이 함께하는 윤리경영 의지와 실천, 반부패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구축, 전사적 청렴윤리 활동,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렴윤리 프로그램, 청렴문화 확산 등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회사는 경북김천혁신도시의 거점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반부패 청렴윤리 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청렴윤리 활동에 대한 교류협력과 함께 우수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이동근 상임감사는 "2018년에도 반부패 청렴윤리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주민 및 민간기업과도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사회 만들기' 노력에 공기업으로서 솔선수범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17년도 지식경영(KM) 우수지식자료 포상 실시

회사는 2017년도 지식경영(KM)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시상을 1월 29일 실시했다. 회사는 직원들이 지식경영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회사업무에 활용성이 높은 우수지식자료를 등록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지식자료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지식경영활동은 스페셜리스트, 스터디그룹, EPRI CoP를 중심으로 전문기술 및 설계경험자료 등을 재가공하여 회사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에 등록하여 전 직원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도 KMS에 등록된 지식자료를 대상으로 부서장 추천과 특수분야전문위원회 및 기술심의 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6건이 우수지식자료로 선정되었다.

회사는 2018년에도 직원들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식경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최우수상** ▶ PWR SMR에서 붕소재생 필요 여부 고찰 (유체계통설계그룹 박중섭)
- 우수상** ▶ 원자력발전소 EMP 설계 및 검증 (원전기기안전센터 송이철)
▶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공사비 관리 (사업관리기술그룹 이재연)
- 장려상** ▶ 신고리 3,4호기/BNPP ESF-CCS AC160 하드웨어 고장유형 및 진단 (계측제어기술그룹 임재현)
▶ 유입변압기 화재방지 시스템 (전기계측기술그룹 박범수)
▶ Test Process Flow of Nuclear Coating DBA Test (원자력 토목건축기술그룹 이철우)

대학생 엔지니어링 겨울캠프 실시

- 전국 주요대학 이공계 대학생 대상
엔지니어링 인재 육성



회사는 파워 엔지니어링 스쿨(PES : Power Engineering School) 겨울캠프를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다. 회사는 미래 엔지니어링 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 중 전국 주요대학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PES 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 처음 실시된 PES 캠프는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지금까지 730여명의 대학생이 과정을 수료했다. 이번 PES 겨울캠프에는 전국 32개 대학 이공계열 2~3학년 대학생 54명이 각 학교의 추천을 받아 참가하였다.

회사는 PES 캠프 참가자들의 역량 강화 및 취업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4박 5일간의 합숙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엔지니어링 기초교육, 인문학특강, 조별 프레젠테이션 및 발전소 견학 등의 교육을 받았다. 회사는 1월 19일 수료식을 갖고 교육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앞으로도 회사는 지속적인 PES 캠프 시행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미래 엔지니어 육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또한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PES 캠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 감사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 –



회사는 지난 1월 17일 이동근 상임감사와 자문위원단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감사자문위원회는 외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감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017년에 도입하였다. 위원회에서는 공석 중인 자문위원으로 서울디지털대학교 윤창원 교수를 신규로 선임하였다. 윤창원 신임 자문위원은 한국NGO학회 이사, 주빌리은행 이사, 흥사단 연구위원 등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청렴윤리 정착에 매진해왔다. 이번 감사자문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반부패 청렴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8년도 감사 업무 현안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또한 자문위원들은 “특히 올해가 새정부의 청렴한국의 개혁적 원년이 될 것인 만큼 청렴윤리업무에 더욱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꾸준한 의견수렴을 통해 소통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가며 감사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캠코와 감사·청렴업무 협약 체결

– 감사 및 반부패·청렴업무 교류 및 상호 협력 –

회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감사 및 반부패·청렴업무 교류 및 지원협력에 관한 협약’을 지난 1월 23일 체결하였다.

부산혁신도시에 위치한 캠코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동근 상임감사와 캠코 현창부 상임감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감사 및 반부패·청렴업무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자체감사기구의 상호 발전, 감사성과 제고와 청렴의식 확산을 도모한다.

또한 △감사역량 제고를 위한 합동교육,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회 등 개최 △감사인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보 교류 △감사활동시 전문

분야 인력지원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정책 공유 및 컨설팅 등의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한다. 협약에 참석한 양 기관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 용기있는 행동, 부패신고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

신고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부패신고 보상금

- 신고보상금을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지급합니다.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 1천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 2천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 8천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부패신고 포상금

- 신고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지급합니다.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1398
일 · 상 · 고 · 발

신분보장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부패신고를 한 이유로



당하였거나 / 당할 우려

- ✓ 원상회복·전직·징계보류 등 적절한 조치
- ✓ 원상회복·효력 유지 등 적절한 조치



비밀보장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습니다.(18.2.1 시행)
-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을 공개하면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변보호

- 부패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 신변보호의 종류

-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
- 일정기간 신변 경호
- 출석·귀가 시 동행
-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

책임감면

- 부패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징계 또는 감형·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위반자는 이렇게 처벌됩니다!

- 부패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18.2.1 시행)
-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등을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불이익 처분을 한 자가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 대처법

부패신고 이전단계

- 신고내용의 온라인(직장게시판 및 SNS 등) 게재 등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사내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거나, SNS등을 통한 신고내용 유포시 피신고자 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 직장내 업무용 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합니다.

직장내 전화·컴퓨터 등 이용과 이메일 사용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조직 구성원에게 부패행위 신고 사실 등을 언급할 경우 내부 신고자로 밝혀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패신고 이후단계

신분이
밝혀지기
전

- 위원회와 접촉하는 것을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위원회에서 사건조사를 위하여 통화, 면담 등을 하는 경우 그 접촉을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내부 신고자로 의심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소속기관·부서내에서 내부 신고자로 의심을 받더라도 최종적으로 신고자의 신분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받을 때 당황하거나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고사항 조사 시 당황하거나 위원회 조사관을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 오히려 내부 고발자로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분이
밝혀진
후

- 소속기관·부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침착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항시 소속기관의 차별 또는 불이익 조치를 주시하여야 하며, 그것을 매일 기록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시 위원회 보호조사관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계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있더라도 격렬한 항의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오히려 신고자가 징계 처분 등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불이익
처분을
받은 후

- 위원회에 신고자 보호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신고자 보호 담당부서에 보호상담 후 보호요청을 하시고, 소청심사 또는 부당해고 구제 등 다른 불복구제 절차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And

점심 먹고 차 한 잔 마시러 가는 길,
작은 트럭에서 노란 봄꽃을 팔고 있었다.
나란히 걷던 일행이 발걸음을 멈추는가 싶더니
프리지아 꽃을 한 아름 사서
일행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세 줄기 묶음 한 개에 2천원이라고 했다.
부담 없는 값이라 봄을 선물하고 싶었던다.
꽃대 하나에 여러 개의 꽃봉오리가
이삭처럼 망울망울 앙증맞게 달려 있다.

각자 입맛대로 커피를 시켰다.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아포카토,
거기다 조각 케이크까지
도대체 커피 값이 모두 얼마냐.
마시는 내내 프리지아 꽃값과 비교가 되어
홀짝 한 모금에 꽃망울이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눈길은 내내 노란 봄꽃에 머물렀다.
꽃을 주는 마음,
꽃을 받은 마음속에 행복이 일렁인다.

봄을 마신다.
정을 마신다.
명량한 웃음들이 꽃송이 위에 내려앉는다.
큰 것은 멀리 있고
작은 것부터 챙겨야 한다.
이것이 요즘 트렌드 소확행(小確幸)이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A KNOWLEDGE EXPERIENCE AT KEPCO E&C

Dao Phuong Lam(daophuonglam@kdis.ac.kr)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재학생 동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Dao Phuong Lam씨는 베트남 국민경제대학교(National Economics University)를 나와 2007년부터 베트남 국영뉴스통신사 VNA(Vietnam News Agency)에서 근무 중이며, 2017년 9월부터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Experience the culture and people of Korea

South Korea is not a strange country to the people of Vietnam. The recent enhancement of cultural exchanges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Vietnam and Korea has made "Kim-chi country" closer to Vietnamese. However, only few people can experience the real Korean culture with an autumn of yellow leaf, a winter of streets covered by snow, a day of "four seasons" and especially experience of contacting with Korean people. Luckily, I am glad to be one of foreign people here to experience such interesting things. So far, my stay in Korea has been five months, not too long, but enough to say that I have had very special experiences and feelings about this country.

A modern Korea, but still retains its ancient features, is the first thing I can feel when landing in this country. Modernity is evident in the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from airports and roads to buildings and commercial centers, all of which is nothing but convenient. Meanwhile the ancient features are hidden behind the walls around the palaces, in the museums or the design of the ancient roof remains to this day. This modern and ancient Korea left a lot of impression for who come here for the first time, including me.

Korean people also have their own "modern" alternating "ancient" characteristics. The rhythm of life here is hustling with people hurrying into the stream trying to catch subway in rush hour. Along with that, there are people who do not rush or hurry. Many people still take the time to meditate, pray at a quite large temple located in the center of crowded Seoul capital.

I have been told that Koreans are always dedicated to their work and assigned tasks, they often willing to do their best to meet the needs of the people who are in need of service or of their help. When I came here, I can be sure that what I heard was true. The enthusiasm of Korean people is precious.

A Friendly and Professional KEPCO E&C

That is not enough to tell all about my feeling for the country and people of Korea, but now I want to talk about KEPCO E&C, where I had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culture of working in Korea for nearly one month period.

Working at KEPCO E&C, especially at Nuclear Business Department, is a very special and unforgettable time. First of all, I find myself be a very warmly welcomed guest. Right from the preparation, KEPCO E&C staffs gave me a feeling of carefully welcomed. They care and help me in every single detail to ensure that I have the most comfortable conditions to work here. The thought started right from the first day of my arrival in Gimcheon City as Ms. Kim Jiwoo and Mr. Kim Kiseok picked me up at the KTX station and led me to the guest house and the company. Next is a brief orientation session prepared by Ms. Park Jung sil which is very useful for me to understand about KEPCO E&C and Nuclear Business Department.

When I started working at Overseas Business Team under Nuclear Business Department, I really felt the atmosphere of professional and serious working of the people here. The seriousness does not cause any tension or discomfort, but a friendly and warm feeling that envelops around me. The people here, from Team Leader to General Manager, Assistant Managers or staffs are always willing to help and exchange information with me. These all broke my nervousness about nuclear power, which was not familiar to me.

Among the friendly people here, I am really impressed by Mr. Lee Jong-min - a diligent, energetic and exceptionally friendly engineer. The special interest of Mr. Lee for Vietnam in general and the city of Da Nang in particular made me very surprised and excited. I seem to have opportunity to introduce the country and people to a foreign friend. Mr. Lee also gave me more insights on nuclear power as well as other insights into Korea, especially about food, lifestyle and preferences. Another person left a very strong impression on me is Mr. Lee Chul Hyung, with stories on many aspects of social life. With extensive knowledge, experience and calm, Mr. Lee has gradually inspired me stories across many themes. Mr. Lee showed me a good picture of a generation of Korean with a broad understanding and life experience.

On my side, working at the Nuclear Business Department, I have gained more insights into the nuclear power, nuclear development in the ASEAN region and Vietnam, the sector that I did not really know lots of information. Four reports on four different topics during my time at KEPCO E&C may not be many, but these reports really extend my insights. Sincerely thanks for these exciting but also challenging assignments from Mr. Yi Sung Myeon - the Team Leader.

Finally, as an internship who has worked at KEPCO E&C, I sincerely wish all members of KEPCO E&C health and success. Along with that, what I would most like to see is the cooperation between KEPCO E&C and the relevant units in the field of nuclear power and electric power in Vietnam so that I have the opportunity to meet again the worth people here.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놀러 오세요! **E&C**

C ommunication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
아기를 재우려고 동요를 따라 부르다가
우린 왜 사과 같은 얼굴만 예쁘다고 하는지,
모과도 나름 매력이 있는데 말이죠.

거울을 봅니다.
피부는 탄력을 잃어가고
배는 점점 나오고
언제 생겼는지 팔자주름까지,
큰일이 난 듯 표정이 어두워지다가도
‘그래 아프지만 앓으면 되지 뭐,
건강이 최고지’ 하면서 돌아섭니다.

세상은 나날이 외모 지상주의의
위력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과도한 성형이나 겉모습에 대한 집착은
정신 건강의 문제일지도 모르지만요.

지구상엔 70억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 외모도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

물질은 예전보다 풍족해졌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복이란
자신이 누리는 현재의 특권이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들녘 꼬트머리,
반도의 풍요

부안 변산반도

01



02



03

04

01 내소사 전나무 숲길 - 그윽한 운치로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02 개암사-울금바위를 이고 앉은 대웅전 건물의 모습이 이채롭다 03 대웅전 전각의 목조각이 유려하다 04 정갈한 꽃창살 문으로 인해 내소사 대웅보전의 멋스러움은 더욱 깊어진다 05 내소사-백제시대에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 06 보물 제277호 내소사 고려 동종

김제 정읍의 너른 평야지대와 이어지는 부안의 남쪽 꼬트머리, 해안선을 따라 불쑥 튀어나온 지역은 변산반도다. 새만금방조제가 들어서며 지형이 바뀌긴 했지만 아름답고 독특한 풍광은 변함없이 고즈넉하며 풍요롭다. 부안의 풍요로움은 들과 바다에서 기인한다. 갯가의 무수한 생명과 염전, 풍어를 이루었던 칠산바다가 그곳에 있다. 천년고찰 내소사가 자리한 변산은 해발 508m로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아늑한 형상의 능선을 따라 감상하는 들 풍광과 바다 풍광이 모두 보기 좋다.

변산반도는 내변산과 외변산으로 구분된다. 내변산은 말그대로 변산의 속살이다. 직소폭포를 비롯해 맑은 담과 계곡이 전형적인 산풍광을 품고 있다.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외변산은 전형적인 포구와 갯벌, 기암절벽지대로 이뤄져 있다. 이곳의 채석강과 적벽강은 책을 쌓아놓은 듯한 층암절벽과 기묘한 빛깔을 지닌 특이한 형상으로 유명하다. 또한 변산을 비롯한 부안의 문화는 아름다운 자연풍광에 못지않은 매력을 지니고 있다. 천년고찰 내소사와 개암사의 소탈한 사찰정취, 곰소와 격포의 비릿한 포구문화, 그런가하면 이곳은 11세기 찬란했던 고려청자의 주 생산지였으며 부안을 비롯한 곳곳에 남아있는 당산들은 우리네 옛 정서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변산의 여행길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너른 들과 아늑한 산, 풍요로운 바다와 질박한 문화를 지닌 아름다운 변산반도를 둘러본다.

소래사가 내소사가 된 까닭은?

변산의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내소사는 이 곳의 대표적인 천년고찰이다. 백제 무왕 34년(633), 승려 해구두타에 의해 창건된 사찰인데 원래 이름은 소래사이다. 언제 내소사로 이름이 바뀌



05



06



07



08

었는지 분명치 않지만 이와 관련해 재미 있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내소사 대웅보전을 지어놓고 단청을 칠할 무렵이었다. 워낙 칠할 곳이 많아 사람의 힘으로 완성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마땅한 단청사가 없었는데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찾아와 자신이 칠을 하겠노라고 했다. 그는 대웅보전 안으로 들어서며 스님에게 당부를 했다.

“내가 안에서 단청을 칠하는 동안 절대로 누구도 들여다봐서도 들어와서도 안 된다.”

나그네는 문고리를 잠그고 작업을 시작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호기심을 참지 못한 어느 스님 하나가 방정맞게도 창구멍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다. 가만히 보니 나그네는 안보이고 예쁜 새 한 마리가 천정을 파닥파닥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부리에 붓을 물고 단청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새는 곧 기척을 느꼈다. 그리곤 소리치며 바닥으로 추락했다. 새는 바닥에 사지를 쭉 뻗고 널부러졌는데 다시 보니 그건 커다란 호랑이였다. 놀란 스님이 어서 일어나시라고 불려보았지만 호랑이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리하여 그 호랑이를 내생(來生)에서나 소생(蘇生)하라는 의미로 이 절집 이름을 내소사(來蘇寺)로 바꾸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대웅보전 안쪽의 단청은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고찰들이 저마다 독특한 풍광을 하나씩 간직하고 있는데 내소사는 초



09

07 곰소-비릿한 젓갈내음이 진동하는 한산한 포구
08 곰소포구의 일몰 09 변산반도 여행 중 꼭 먹어 봐야할 백합죽 10 붉은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적벽강 11 기묘한 절벽과 해식동굴이 볼만한 채석강



10



11

입의 아름다리 전나무 숲길이 특히 아름답다. 이른 새벽 혹은 아침나절 이 숲길을 거니노라면 속세에 찌든 머릿속이 한껏 맑아짐을 느낄 수 있다. 그윽한 숲길을 지나 다다른 경내, 마당 한가운데에는 풍광의 반을 가릴만한 거대한 근나무가 버티고 있는데 수령이 자그마치 천년이나 된다고 한다. 이 나무는 당산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사찰 경내에 당산나무가 자리한 사실 또한 독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내소사에는 또 하나 볼거리가 있다. 바로 대웅보전의 꽃창살이다. 정갈하게 장식된 화사한 나무 꽃들이 이 사찰의 소탈한 운치를 한껏 느껴지게 한다.

변산반도의 볼거리들

격포, 채석강과 적벽강, 개암사

변산반도의 바다를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것은 기암절벽으로 형성된 채석강과 적벽강이다. 위도로 향하는 뱃길의 초입이기도한 격포항 주변, 1.5km 일대의 층암절벽을 채석강이라 부른다. 채석강은 수만 권의 책을 겹겹이 쌓아놓은 듯한 형상을 지니고 있다. 당나라 시인 이태백이 술을 마시다가 물 위에 뜬 달을 잡으려다 빠져죽은 채석강과 비슷한 풍경이라 하여 채석강이라 불리워졌다.

바다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기묘한 절벽과 해식동굴이 볼만하다. 적벽강은 채석장에서 북쪽으로 500미터 떨어진 길이 2km 가량의 해안가를 일컫는다. 이곳 역시 풍화와 해식으로 인해 형성된 바위 절벽들로 이루어져 있다. 움푹 패인 암반들과 기묘한 뒤편의 색깔을 지닌 절벽이 대체적으로 붉은 색에 가깝다하여 적벽강이라 불리었다. 중국의 적벽강을 본따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다. 서해안자락답게 변산반도의 곳곳에 일몰명소들이 즐비하다. 적벽강에서 보는 일몰은 변산 낙조대의 일몰과 더불어 변산반도의 볼만한 일몰감상지이며, 해안가를 달리다 보면 나타나는 솔섬의 일몰 또한 곱고 그윽하기 그지없다. 채석강이 격포항과 닿아있어 조금은 번잡스럽게 느껴진다면 적벽강으로 가보길 권한다.

개암사는 백제 무왕 35년(634), 왕사였던 묘연선사가 변한의 궁전을 고쳐서 사찰로 만든 곳이다. 원래 이곳은 삼한시대 한 축이었던 변한이 진한과 마한과의 전쟁을 피해 들어와 왕궁터로 쓰던 곳이었다. 임진왜란 때 전각들이 모두 소실된 이후 인조에 이르러 다시 중창되었다고 한다. 내소사로 향하는 길, 전나무 숲이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개암사로 들어가는 길은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다. 23번 국도주변, 상서면일대는 그야말로 호젓한 풍경이 펼쳐지는데 개암사길로 들어서면 초입의 저수지와 변산을 배경으로 한 푸르른 숲길이 산사로 향하는 마음을 더없이 평온하게 해준다. 대웅보전이 보물 제292호로 지정되어 있다.

뱃길을 보전해주던 당산과 칠산바다

전라도 지방에는 유난히 많은 당산문화가 남아있다. 당산은 마을의 안위와 풍요를 바라는 소박했던 옛 사람들의 소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부안 땅에는 아직도 그 흔적들이 곳곳에 남겨져 있다.



12



13



14



15



16

12 내소사 경내에 자리한 당산나무 13 당제를 지내러 당산을 오르는 위도 사람들 14 짚으로 엮은 배를 먼 바다로 띄우는 위도 띠벳놀이 15 띠벳놀이가 열리는 위도 대리항 16 당집에서 열리는 당산제 17 변산 솔섬의 아름다운 일몰

내륙의 당산들이 장승과 고목으로 주류를 이루는데 반해 부안의 당산들은 그 형태가 다양하다. 부안읍의 장승 당산들과 적벽강의 수성당, 우동리 당산나무, 내소사 주위의 당산 나무를 비롯해 주변 섬 위도의 띠벳놀이도 다른 곳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부안 땅의 당산문화일 것이다.

정월 초사흘날 열리는 위도 띠벳놀이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 지역의 독특한 당산제다. 마을 뒤편의 당산과 포구에서 제를 지낸 후, 짚으로 만든 배를 띄우고 먼 바다에 나가 줄을 풀어 놓는다. 짚배가 가라앉는 근방으로 물고기가 물린다는 속설이 있는데, 조기잡이가 번성했던 시절 한번 나가면 100동, 그러니까 조기 10,000마리 가량을 거뜬히 잡아왔다고 한다. 사흘 동안 조기를 잡아 평생을 먹고 살았다는 사흘칠산이란 말이 돌 정도였다. 칠산 바다에서 잡힌 조기는 대부분 영광군 법성포나 줄포로 들어가 굴비로 가공되었다. 영광굴비의 명성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칠산 바닷물을 먹어야 알을 낳는다는 조기 떼가 사라진지도 어느새 20여년이 흘렀다. 지금 칠산 바다의 어민들은 멸치와 해태양식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조기철에는 9시간이나 배를 몰고 나가야 하는 흑산도 인근까지 가서 조기를 잡아온다.

변산 등산코스

내변산주차장 - 직소폭포 - 재백이고개 - 관음봉삼거리 - 변산 관음봉 - 내소사 (7km / 4시간 소요) 



17

약 달이는데 쓰이는 물 금강수, 살과 뼈를 찌르듯 맑고 차다



일기분류 : 유산일기

출 전 : 금강일기(金剛日記)

시 기 : 1841년 4월 5일 ~

인 물 : 강희영, 안종하, 이천범, 경열

주 제 : 놀이와 유람, 고사와 기원

1841년 4월 5일, 금강산을 유람 중이던 강희영은 이날 표훈사와 팔담, 백운대를 보았다. 백운대에서 조금 있다가 아래로 내려와서, 동쪽으로 돌아 내려와 금강수(金岡水)를 마셨다. 물이 매우 맑고 차서 사람의 피부와 뼈를 침으로 찌르는 것 같았다. 싸온 도시락을 풀어놓고 먹은 후에, 또 석 잔의 물을 마셨다. 이 물이 약을 달이는데 쓰인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 물맛도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다르다. -조선시대의 물맛 구분-

물은 그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이 붙는다. 우리가 마시는 식수, 불순물을 제거시킨 증류수, 탄산가스가 들어있는 소다수, 광물질이 들어있는 광천수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이슬을 받아 만든 감로수, 첫새벽에 길어낸 깨끗하고 시원한 우물물인 정화수, 성경에 나오는 생명수 등등 한이 없다.

조선시대 양반 집에서는 물을 12가지로 구분해 각각 다른 독에 담아두고 용도별로 사용했다. 이를테면 입춘 날 받아둔 '입춘수'는 아들을 낳게 한다 하여 부부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잔씩 들이키곤 했다. 입동 열흘 후에 내리는 빗물을 '약우수'라 하여 약 달이는 물로 사용했다. 자른 대나무 속에 고인 물은 '반천하수'라고 부르며 역시 약을 달이는 물로 사용했다.

물은 위치와 맛에 따라서도 다르게 불렸다고 한다. 서울 북악산을 중심으로 오른쪽 인왕산 줄기에서 흐르는 물을 '백호수', 왼쪽 삼청동 뒷산에 흐르는 물은 '청룡수', 남산에서 흐르는 물은 '주작수'라고 각각 이름 붙여졌다. 선비들은 물맛도 까다롭게 구분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맛이 좋은 물로는 충주의 '달천수'가 꼽혔다고 한다. 오대산에서 나와 한강으로 흘러드는 '우중수'를 둘째로, 속리산에서 흐르는 '삼타수'를 셋째로 쳤다. 같은 물이라도 산꼭대기에서 나는 물과 산 밑에서 나는 물의 맛이 다르고, 바위 틈새에서 나는 물과 모래에서 나는 물의 맛이 다르다고 했다. 흙속에서 나는 물은 맑으나 텁텁한 맛이 나는 것으로 생각했다. 고인 물보다 흐르는 물을, 양지쪽 물보다는 응달 물을 더 맛있는 물로 쳤다. 황희 정승은 무거운 물을 '군자물'이라 하여 맛있는 물로 꼽았다. 율곡 역시 오대산 암자의 일학스님과 함께 물맛을 보는 취미를 즐겼다. 역시 무게로 물맛을 따졌다고 한다. [E&C](#)

‘리콜’ 이제 소비자 권리이자 의무 ‘왕’이 될 필요는 없지만 ‘호구’는 되지 말자

한때 ‘손님은 왕’이라는 의식이 사회 전반에 팽배했던 적이 있다. 경제적 대가를 치르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취하는 이는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할 왕이나 주인과 같은 존재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도 일부 분야에서 이 명제는 상당히 유효하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생활용품에서 이른바 손님이 ‘호구’ 잡히는 사례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살충제 계란과 발암물질 검출 생리대 파동이 대표적이다.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과정에서 생산자가 소비의 당위성을 등에 업고 생산·유통·소비의 과정을 주도하는 시스템이 자리잡은 탓이다. 갈수록 산업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으면 반대로 호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특히 생리대와 같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품은 더더욱 현명한 소비가 중요하다. 가임기 여성 입장에서 생리대는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제품이다. 계란과 같이 소비자가 직·간접적으로 섭취를 피하면 그만인 그런 품목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생리대 파동은 파장이 엄청났다. 기관별로 다른 실험 결과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다가 하면 친환경 면 생리대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관련 산업의 구도까지 뒤흔들었다. 일상 생활용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들이 진다는 점에서 살충제 계란과 발암 물질 생리대 사건은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큰 교훈을 줬다.

이때 떠오르는 제도가 바로 ‘리콜(Recall)’이다. 리콜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수입·판매자 등의 사업자가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행위다. 리콜은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자진리콜은 사업자가 자진해서 물품을 수거·파기 하는 것인 반면 리콜권고와 리콜명령은 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사실 소비자기본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에서는 리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제작결함 시정·회수·폐기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흔히 리콜이라 하면 자동차가 떠오르기 마련이다. 그만큼 고가의 제품이기도 하고 생명에 직결되는 장치의 결함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다. 또 유독 언론 매체에서 많이 다룬

것도 리콜하면 곧 자동차를 연상시키는 주요 이유다. 하지만 자동차를 제외한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에 등에 대한 리콜도 매년 꾸준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지 못하다.

제도적으로 리콜은 품목별로 △자동차 △공산품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으로 구분된다. 자동차와 화장품 리콜은 소비의 규모가 커지면서 덩달아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자동차는 2015년 203건에서 2016년 242건으로 늘었고, 화장품은 2015년 3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138건으로 급증했다. 1년 사이에 무려 103건이 늘어난 셈이다. 공산품 리콜도 만만치 않다. 공산품 리콜은 2014년 478건에서 2015년 654건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622건을 보였다.

종류와 내용도 다양해져서 어린이 교구와 완구에서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치를 초과한 제품에서부

터 유해성분의 허용치 초과 식품은 물론 화장품까지 리콜의 대상이 되곤 한다. 심지어 미국에서 서랍장이 넘어져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국가기술표준원이 2016년 7월 국내 11개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가기술표준원은 7개 업체 27개 제품에 대해 리콜 권고를 내렸다. 같은 해 8월 한국소비자원은 태국산 냉동망고와 애플망고에서 대장균 최대 허용 한계치의 5~6배가 검출되자 리콜을 권고했고,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의 리콜·회수·폐기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리콜은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무엇보다 동시에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것이 리콜의 목적이다. 이에 따라 정보 공유가 중요해졌다.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창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을 등록해 놓으면 결함 발생 시 관련 정보가 스마트폰 애

플리케이션(앱)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소비자 관련 앱들도 많이 활성화 돼 유용하다. 앱 장터에서 ‘행복드림’이나 ‘스마트컨슈머’, ‘리콜 제품 알리미’ 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보다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행복드림 앱에서는 상품 바코드를 찍으면 해당 제품에 관한 리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제조사·물품명·결함내용·리콜기간·리콜방법·문의처 등의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다만 공개되는 정보는 품목별 개별법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리콜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실제 안전사고, 부정·불량 식품 신고, 공산품, 의약품·화장품, 자동차 등 내용과 상황에 따라 신고 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곳이 각기 다르다. 나아가 다수의 소비자가 힘을 합쳐 법적 소송으로 피해를 보전받으려 하면 사건이 완료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대형유통업체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중소유통 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약 9000개 제품에서 최종적으로 11만5000개에 달하는 제품에까지 해당 시스템에 등록돼 한결 대처가 간편해 진다.

이제 정당한 대가가 반드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세상이 아니다. 현명한 소비야말로 전체 산업을 한층 건전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반드시 왕이 될 필요는 없지만 호구 잡히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E3C**

만성 기관지염에 좋은 음식, 기관지와 호흡기에 좋은 음식은?

‘면역력 키우는 구기자부터 양파 껍질까지’

만성 기관지염에 좋은 음식이 온라인상 화제인 가운데, 기관지와 호흡기에 좋은 음식이 눈길을 끈다.

건조하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목이 칼칼하며 따끔거리기 일쑤다. 평소 기관지와 호흡기에 좋은 음식을 먹어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한방에서 보는 체질별로 먹으면 기관지와 호흡기에 좋은 식품에는 무엇이 있을까?

영지

만성 기관지염을 비롯해 호흡기 질환에 좋다. 불로초로 불리며 몸이 허한 사람의 기를 보하는 역할을 한다. 영지와 오미자, 대추를 넣고 끓인 후 차처럼 복용한다.

구기자

겨울철 자칫 떨어질 수 있는 면역력이 보강된다. 강한 효과를 나타내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 있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팝스타 마돈나가 생구기자 열매를 건강식품으로 먹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미국, 유럽 등지에서 각광받고 있다.

녹두

《본초강목》에는 녹두가 성질이 차고 맛이 달며 열을 내리고 부은 것을 가라앉힌다고 적혀 있다. 베개에 넣고 자면 눈을 밝게 하고 신경성 두통을 치료한다. 갈아서 끓인 즙을 마시면 부종을 없애고 기력을 보충한다.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과용하지 않는다.

꿀

열을 내리고, 몸의 독성을 해독하고, 촉촉하게 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의대는 ‘기침 억제 성분인 덱스트로메토판보다 소량의 꿀이 기침 증상과 빈도를 완화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거나 자주 마시는 차에 섞어도 좋다. 녹차에 넣으면 혈액순환에 좋고 허브차에 넣으면 두통을 진정시킨다.

도라지

한방에서 ‘길경(桔梗)’이라 부르는 도라지는 성질이 약간 따뜻하며 맛이 맵다. 《본초강목》에는 폐기로 숨이 찬 것을 치료하고 기를 내리며 목구멍이 아픈 것을 낫게 한다고 적혀 있다. 도라지의 사포닌은 목 안과 위의 점막을 자극해 반사적으로 기관지 분비선의 분비를 항진시킨다. 도라지는 인삼 대용으로 꾸준히 먹으면 좋은 보약 중 하나다.

굴피

잘 익은 굴의 껍질을 햇볕에 말려 쓴다. 굴피를 하루 4~12g 달여 약으로 먹으면, 입맛이 없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나는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가래가 많을 때 좋고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천식, 폐결핵 등에도 굴 껍질을 달여 마신다. 굴피, 살구씨, 오미자 등을 함께 달여 먹어도 좋다.

은행

은행에는 펙틴, 히스티딘, 녹말, 단백질, 지방 등을 함유해 폐결핵 환자나 천식 환자가 먹으면 좋다. 오래 먹으면 기침이 없어지고 가래가 현저히 사라진다. 최 원장은 “은행이 호흡기능을 왕성하게 하고, 염증을 소멸하며, 결핵균의 발육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생강

물에 씻은 후 약한 불에 구워 쓰는 것이 좋다. 생강은 신진대사를 촉진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에 좋다. 《본초강목》에는 생강은 따뜻하나 생강 껍질이 차기 때문에 뜨겁게 하려면 껍질을 버리고, 차게 하려면 껍질째 써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생강과 파의 흰 뿌리를 함께 달여 먹으면 감기가 빨리 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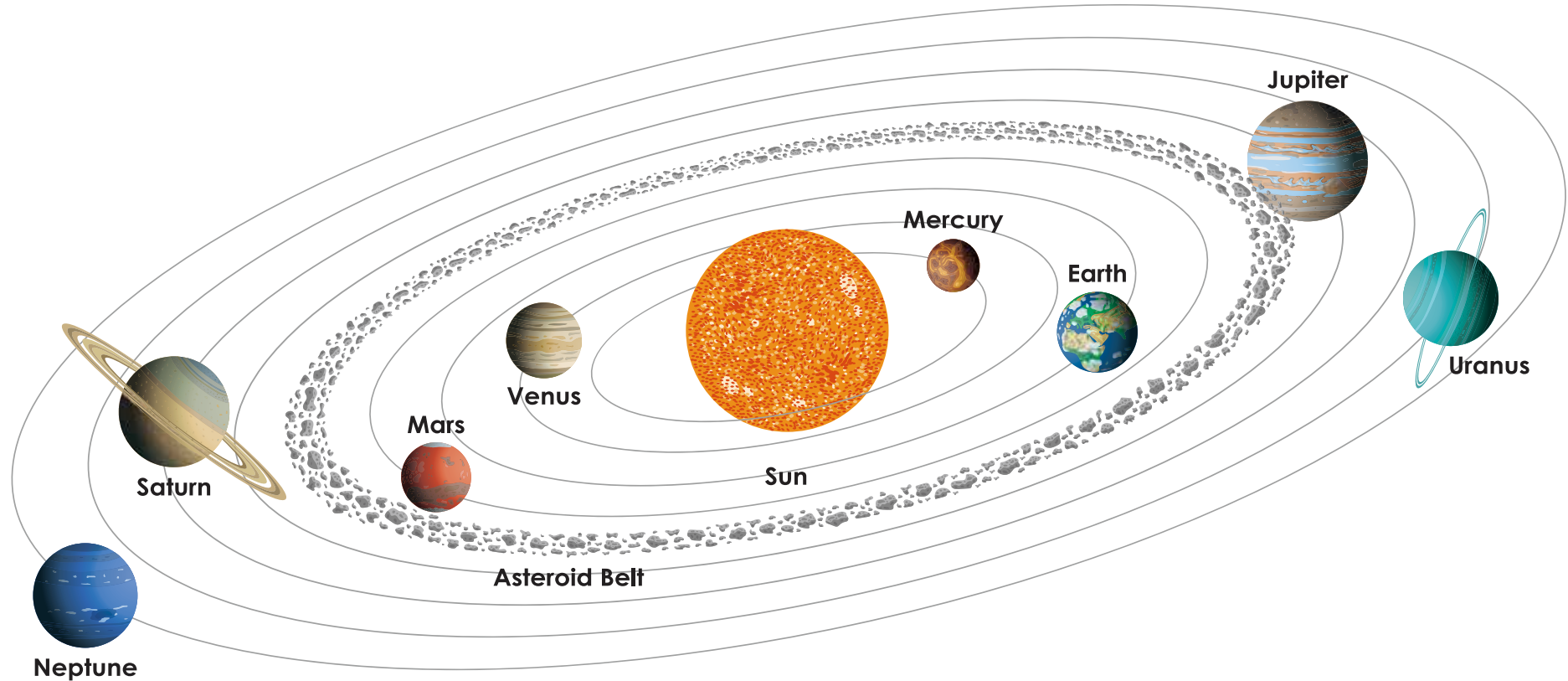
양파껍질

양파 껍질에 들어 있는 케르세틴은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기관지에 좋다. 양파 껍질은 물에 깨끗이 씻어 말린 다음 물에 넣고 끓인다. 물 2.5L에 양파 2~3개분의 껍질이면 충분하다. 말린 양파 껍질을 다관에 넣고 우려 마셔도 좋다. [E&C](#)

목성 착아 삼망리, 주노의 탐험



“집안일이라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누구엔가 하소연이라도 해야 답답한 가슴이 풀릴 것 같아 이렇게 털어놔 봅니다. 제 남편은 지독한 바람둥이예요. 제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꼭 사고를 칩니다. 남들에 들킬까 싶어 짙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 여자들을 만나거든요.



남들은 이런 저를 ‘질투의 화신’이니, 남편과 함께 바람을 피운 여자를 잔인하게 응징하는 ‘복수의 화신’이니 하면서 저를 독한 여자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내로써는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 남편을 살피기 위해 저는 아주 먼 길을 떠났습니다. 달려온 거리만 해도 27억 km, 2011년 8월에 집을 출발했으니 이제 딱 5년 정도 됐네요. 오늘 드디어 패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림기도 한 남편에게 도착했습니다.

남편을 찾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먼 거리를 달려온 제가 누구냐고요? 제 남편 이름은 주피터, 사람들은 목성이라고도 부르죠. 저는 그의 정실부인 주노예요. 목성 탐사선이라고도 부르죠. 이제부터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하려고요. 그리고 바람 피운 여자들도 찾아 다그치고 혼을 내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러한 여자들을 주피터의 위성이라고 부르더군요.”

주노는 2016년 목성 궤도에 안착하는 데 성공한 미 항공우주국(NASA)의 무인 목성 탐사선이다. 2011년 8월 6일 아틀라스V 로켓에 실려 발사된 목성 탐사선으로 무게 4t, 높이 3.5m, 지름 3.5m의 육각형 통체를 지니고 있으며, 고효율 태양전지가 장착된 태양전지판 3개가 달려 있다. 주노의 목성 궤도 진입은 2011년 8월 5일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기지에서 발사된 지 4년 11개월 만이다. 1995년 12월 ‘갈릴레오’ 탐사선이 진입한 이후 20년 반 만이다.

탐사선의 이름은 로마신화에서 유래했다. 탐사선의 목적지인 목성의 이름은 주피터. 그리스 신화 속의 제우스가 전신으로 로마신화에서는 번개를 다루는 최고의 신으로 등장한다. 그는 천하의 바람둥이였다. 여신에서부터 님프, 심지어 인간에 이르기까지 손을 뻗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고 보면 태양계 5번째 행성인 목성을 주피터, 그 목성을 탐사하는 우주선을 주노라 각각 이름 붙인 것은 절묘한 어휘선택이었다. 목성은 수많은 여인을 거느린 주피터처럼 무려 67개의 위성을 두고 있으니가 말이다.

주피터는 주노의 감시망을 피해 이 여자 저 여자를 탐했다. 그런 주피터가 어느 날 이오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진다. 주피터는 아내의 눈을 피하려고 이오를 암소로 변신시킨 뒤 짙은 구름을 갈아 감춰둔다. 그러나 질투의 화신이라는 아내 주노의 욕감은 놀라웠다. ‘구름 속 암소’가 된 이오를 기어코 찾아내 처절한 복수극을 펼친다.

주피터는 다른 여성을 유혹할 때면 주변에 구름으로 장막을 쳐 감추곤 했는데 유독 정실부인인 주노만이 구름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어 남편이 바람 피우는 현장을 잡아낼 수가 있다. 태양계 행성을 가운데서 가장 큰 목성 주피터도 신화와 다를 바가 없다. 목성의 주변은 50km 두께의 아름답고 거대한 가스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다. 탐사선 주노가 여신 주노처럼 그 구름을 뚫고 목성 내부의 구성을 알아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인간은 지금까지 목성을 그저 먼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했다. 지구보다 14배 강한 자기장, 내부의 핵에서 뿜어져 나오는 극악의 방사선, 여기에 지구의 318배에 이르는 엄청난 질량에 따른 강력한 중력 등으로 인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환경이다. 전파 망원경도 통하지 않는다. 전파가 두꺼운 기체가 방어막을 치고 있는 목성의 대기에 반사되지 않고 그대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마치 주피터가 자신과 애인의 애정행각을 가리려고 구름을 갈아놓은 격이다. 1995년 목성 궤도에 진입한 갈릴레오 탐사선 역시 멀리서 목성계 전체를 조망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면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조2700억 원이 투입된 이번 주노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지금까지 여러 대의 탐사선이 목성을 탐사했지만 주노만큼 장시간 근거리 관측을 한 탐사선은 없다. 인간이 보낸 우주선이 목성의 극지방 상공궤도를 지나는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목성의 비밀을 주노가 파헤쳐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더욱 주목 받고 있다.

목성은 우리 인류가 어디에서 왔고, 왜 행성인 지구에 있는지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해줄 수도 있다. 많은 과학자들은 목성의 핵심에 우리의 지구와 태양계의 비밀을 설명해 줄 데이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목성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따라서 주노 탐사선이 태양계 형성 초기에 목성처럼 거대한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해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사히 목성 궤도에 진입한 주노는 앞으로 20개월 이상, 목성 주위를 서른일곱 바퀴를 돌며 목성의 대기, 자기장, 중력장 등을 관찰해 내부구조를 밝히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주노가 수행할 임무는 대략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오로라를 관측하는 일이다. 목성은 태양계의 어떤 행성보다도 강력한 자기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극지방의 오로라 역시 장대하다. 때로는 오로라의 규모가 지구 폭의 수배에 이를 정도다. 탐사선은 목성의 자기장을 측정하고,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오로라 현상을 유발하는지를 밝혀낼 것이다.

주노가 밝혀낼 또 다른 하나의 의문이 있다. 목성에도 과연 핵이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질문이지만 그렇지가 않다. 과학자들은 아직까지 목성의 아름다운 반점과 띠 아래에 과연 암석 표면이 숨어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대신에 높은 압력으로 대기의 주성분인 수소와 헬륨가스가 압축되어 아주 낮은 형태의 수소 핵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주장이다.

중요한 것이 또 있다. 목성에 물의 존재를 수색하는 일이다. 물의 존재는 목성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형성됐는지 뿐만 아니라 태양계 형성 초기의 조건이 어땠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태양계 최대 행성인 목성이 아마 제일 먼저 형성되면서 어린 태양 주변의 모든 재료를 쓸어 담았을 수도 있다. 또한 목성을 형성하는 재료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인류가 우주의 비밀에 한걸음 더 다가 설 수 있도록 긴 시간을 달려온 주노.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주노의 임무가 멋지게 성공되길 염원해 본다.



Festival

제21회 영덕대게축제

기 간 : 3월 22일 ~ 25일 장 소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항 일대



우리나라 대표적 특산물인 영덕대게의 맛을 자랑하는 <영덕대게축제>가 3월 22일에서 3월 25일까지 4일간 펼쳐진다. 올해로 21회째 이어지는 <영덕대게축제>는 강구항 일원에서 펼쳐지며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올해 축제에는 100여 개의 대게 상가가 밀집해 있는 대게거리에서 천년의 맛을 자랑하는 영덕대게는 물론 풍부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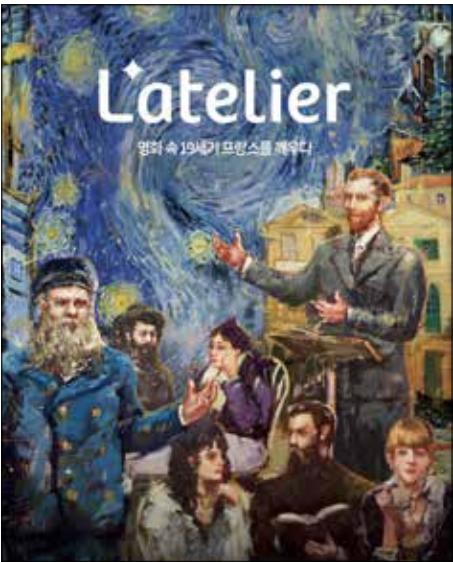
www.ydcrabfestival.com

Exhibition

라뜰리에

기 간 : ~ 3월 31일 장 소 : 동대문 현대시티 아울렛 11층 라뜰리에
시간의 문이 열리면 펼쳐지는 19세기 화가들의 그림 속 공간
액자 속 공간은 곧 현실이 되고, 여러분은 그림의 일부가 된다.
뮤지컬, 미디어아트쇼, 영화 속 인물과의 대화하는 이색체험을 통해 모네의 정원에도 들어가보고, 화가 공동체라는 부푼 꿈을 안고 화려한 색으로 가득찬 남프랑스 아틀로 온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도 보고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전시. 그 시절 프랑스 예술가들의 발걸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미술관에 들어가면 액자마다 인물들이 살아있는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 전시! 시시각각 빛과 함께 다양한 색채로 변하고 화가들이 그린 그림 속 인물들이 살아 숨쉬는, 라뜰리에 L'atelier로 초대한다.

www.light-atelier.com



Book

인생의 밀도 : 날마다 비우고 단단하게 채우는 새로 고침의 힘

얼마나 살았는지보다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다. 밀도, 삶을 대하는 진지함에서 짙어지는 사람의 농도에 대하여. 150만 화제의 명강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자세를 책으로 만나다!
한 노 전문가가 평생에 걸쳐 쌓은 사유와,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자 노력한 성찰에 대한 중간결과다.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한국 사법정보화의 틀을 마련한 주요 인물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한 저자는 이 책에서 IT 전문가로서,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수차례 격변을 경험한 시민으로서 60여 년의 세월과 경험에 비추어 정체되지 않는 인생과 변화를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 조언을 건넨다. 우리가 흔히 '내공'이라고 부르는 아날로그적인 힘은 이처럼 외부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그 정보들을 기록이라는 과정을 통해 내 것으로 소화하며, 이렇게 정리된 사유를 축적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하루 동안 실행하고 나면 우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을 받으며 '딱 찬 하루'를 보냈다는 충만감을 느낀다. 그리고 딱 찬 하루가 삶 전체로 이어졌을 때 스스로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밀도 있는 삶'을 살았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누구나 밀도 있는 삶을 원하지만 하루를 천 년처럼 언제나 몰입해서 지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날마다 비우고 다시 채우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반추하고 앞날을 가능할 때, 최소한 어제보다는 밀도 있는 오늘을 보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나가면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쉬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갖추게 된다.

강만구 저 | 청림출판



Movie

더 포스트

“우리가 보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고, 국민이 지는 겁니다.”
1971년, 뉴욕 타임즈의 '펜타곤 페이퍼' 특종 보도로 미 전역이 발칵 뒤집힌다.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에 이르는 네 명의 대통령이 30년간 감춰온 베트남 전쟁의 비밀이 알려지자 정부는 관련 보도를 금지시키고, 경쟁지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장 '벤'(톰 행크스)은 베트남 전쟁의 진실이 담긴 정부기밀문서 '펜타곤 페이퍼' 입수에 사활을 건다. 결국 4천 장에 달하는 정부 기밀 문서를 손에 쥔 '벤'(톰 행크스)은 미 정부가 개입하여 베트남 전쟁을 조작한 사건을 세상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최초의 여성 발행인 '캐서린'(메릴 스트립)은 회사와 자신, 모든 것을 걸고 세상을 바꿀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데...
1분 1초의 사활을 건 특종 경쟁 속, 세상을 뒤흔든 위대한 보도가 시작된다!

상영중



KEPCO E&C N e w s

● 2018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개최

2018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가 지난 2월 7일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정관 변경의 건 및 대표이사 사장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다. 정관 변경의 건은 정관 제41조 상담역 및 자문위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체계를 구축했다. 대표이사 사장 선임의 건은 참석자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이배수 후보자가 회사의 제20대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출되었다. 회사는 에너지 전환정책 등 어려움 속에서도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Global Leading Energy Solution Partner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의 구심점으로서 많은 기여를 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서 및 기술평가등급 T1 획득

우리 회사가 신용평가기관인 NICE평가정보(주)로부터 기술평가등급 T1을 획득하고,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서를 취득했다. 회사는 공공기관 입찰참여시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술능력부문(10점 만점) 만점 취득을 위해 기술평가등급 평가 인증기관인 NICE평가정보(주)에 기술등급 평가를 의뢰하여 최상위 등급인 T1 기업 평가를 받았다. NICE평가정보(주)는 기술평가 최상위 등급인 T1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1월 16일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서 획득으로 최상위 기술역량 기업으로 공식 인정 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 물품구매 입찰 시 적격심사 증빙서 활용 및 회사 기업신용평가지 가산점(0.2점)이 반영되어 회사 기술역량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획득

회사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획득하였다. 가족친화기관 인증제는 가족친화 경영에 앞장서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접수를 받아 서면심사, 현장실사, 인증위원회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회사는 2012년 12월 최초 인증 이후 2015년 유효기간을 2년간 연장하였으며, 2017년 다시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3회 연속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이번 재인증 심사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신규 근무제도 도입과 300여명의 보육원아를 수용할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주요실적〉

–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이용률(100%) : 출산휴가 후 자동 육아휴직제도 도입



- 남녀 육아휴직 이용률(95%) : 평균 육아휴직 기간 1년
- 유연근무제 활용률(84%) :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해 직원이 원하는 근무제 선택
- 직장어린이집 보육원아(289명)

회사는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기업문화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 EU-APR 표준설계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취득

회사는 유럽수출허원전인 EU-APR 표준설계에 대한 유럽사업자요건(European Utility Requirements, EUR) 인증을 취득하였다. 이번 인증은 우리 회사를 비롯하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중공업이 공동으로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추진됐다. 2011년 12월 인증심사를 EUR 협회에 공식 신청하고 2년에 걸쳐 예비평가를 받았다. 예비평가결과 본 심사 착수를 위한 조건이 충족돼 2015년 11월 본심사를 시작, EUR 본심사 가운데 최단 기간인 24개월 만에 최종 인증서를 받게 되었다. EUR 인증은 유럽사업자협회가 유럽에 건설될 신형원전에 대해 안전성, 경제성 등에 대한 요건을 심사하는 것이다. 유럽 12개국 14개 원전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신규원전설계를 표준화하고 발주관련 기술적 배경을 정의한 EUR을 제시하고 이 요건에 대한 표준설계 부합성을 평가한다. 본심사에서는 20개 분야, 4,500여개의 방대한 요건에 대한 만족성 평가가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620건에 달하는 기술문서를 제출하고, 800여건의 질의응답을 수행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CG(Coordination Group) 회의 등을 통해 본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EU-APR 표준설계 인증 심사에 신규원전 건설 의사가 있는 유럽사업자가 참여함으로써 향후 유럽 시장에서의 수주 가능성을 높였으며, EUR 요건을 원전건설사업의 표준 입찰요건으로 사용하는 국가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한 교두보도 확보하게 되었다.

● 2017년도 제12차 친절 모범직원 선정

회사는 생산성 향상과 소통문화 확산을 통해 밝고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12차 친절 모범직원을 선정하였다.

구 분	선 정 자			추 천 자		
모범직원	원자력사업관리실(책임급)	진 상 준	원자로사업관리실(주임급)	김 교 상		
	홍보실(선임급)	배 성 진	인사처(주임급)	정 상 인		
	(주)영광종합개발(사원)	전 미 정	감사실(책임급)	조 동 환		
친절직원	신)기계배관기술그룹(주임급)	한 진	신)기계배관기술그룹(수석급)	정 병 조		



부장님이 주신 선물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주는 선물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윤리경영 Key-point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주는 선물



상급자가 회사 경비로 직원에게 격려 선물을 주면 안되는 건가요?

상급자는 부하 직원에게 격려차원에서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원이 개인적인 부담이 아니라 회사예산이나 거래처를 통해 확보되었다면 윤리행동강령에 어긋납니다.

Inside Outside

동호회 동정

참사랑봉사단



회사는 지난해 말 김천 지역 4개 시설과 울진 등 4대 현장의 결연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지역 밀착형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원자력본부 직원 70여명은 기부금 전달과 시설 대청소, 일상생활지원, 정서 및 학습 지원, 주거환경 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원자력본부 참사랑봉사단은 매년 본사와 4대 현장의 지역사회 결연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시행하며 나눔 경영을 실천해오고 있다.

회사는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사우 애경사



결혼

- ▶ 원자력)사업관리기술그룹 김형석 부장 자녀 : 1월 20일 뉴힐탐호텔
- ▶ 노동조합 하진수 위원장 자녀 : 2월 24일 페이지 웨딩&파티

부음

- ▶ 원자력)계측제어기술그룹 조병수 부장 장모상 : 1월 11일 서울 국립의료원
- ▶ 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이재한 부장 배우자상 : 1월 12일 김천제일병원
- ▶ 원자력)기술그룹 홍성철 과장 장모상 : 1월 14일 부산 동의의료원
- ▶ 원자력)전기기술그룹 윤재형 부장 부친상 : 1월 15일 서울 건국대병원
- ▶ 기술전략실 박수의 부장 부친상 : 1월 16일 경주 동국대학교병원
- ▶ 신사업개발처 여경규 부장 모친상 : 1월 18일 문경장례식장
- ▶ 신사업)전기계측기술그룹 오민혁 과장 모친상 : 1월 23일 청주의료원
- ▶ 원자력)기술그룹 나한정 차장 장인상 : 1월 23일 서울적십자병원
- ▶ 원자력)사업책임자실 서강완 차장 장인상 : 1월 24일 안성 성요셉병원
- ▶ 원자력) 전기기술그룹 김삼순 부장 장인상 : 1월 24일 서울 아산병원
- ▶ 원자로)사업관리실 오율성 부장 모친상 : 1월 24일 대전 유성한가족병원
- ▶ 원자력)기술그룹 류인철 차장 장인상 : 1월 25일 경남 창원공설장례식장



동우회 동정

결혼

- 이석영 회원 자녀 : 1월 27일 SC 컨벤션센터
- 손재관 회원 자녀 : 1월 27일 KU 컨벤션웨딩홀
- 윤성한 회원 자녀 : 2월 24일 로얄호텔서울

부음

- 이희남 회원 장인상 : 1월 1일 명지병원
- 정시철 회원 본인상 : 1월 8일 수원요양병원
- 윤동수(기계) 회원 장모상 : 1월 12일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 최준훈 회원 모친상 : 1월 16일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



알립니다

봉사단, 동호회 부서행사 등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시면 홍보실로 연락주세요. 동우회는 퇴직직원들의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향초 · 인센스 스틱 사용 시 실내 공기 오염 우려 있어

—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 피하고 환기 필요

최근 겨울철 집안 냄새를 제거하거나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향초, 인센스 스틱*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실내 공기를 오염시킬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솥 등에 향료를 첨가하여 막대 모양으로 만든 제품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실내 공기 오염 위험

향초와 인센스 스틱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방향제'로 분류되며, 유해물질 함량 기준은 규정하고 있으나 연소 시 유해물질 방출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유해물질 함량 기준에 따라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등을 시험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욕실과 유사한 10.23㎡의 공간에서 향초는 2시간, 인센스 스틱은 15분 연소시킨 후 실내 공기를 포집하여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향초 10개 중 3개 제품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권고기준(500 $\mu\text{g}/\text{m}^3$ 이하)'을 초과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이 검출(최소 552 $\mu\text{g}/\text{m}^3$ ~최대 2,803 $\mu\text{g}/\text{m}^3$)되었다. 또한 인센스 스틱 10개 중 5개 제품도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 질 권고기준(30 $\mu\text{g}/\text{m}^3$ 이하)'을 초과하는 벤젠이 검출(최소 33 $\mu\text{g}/\text{m}^3$ ~최대 186 $\mu\text{g}/\text{m}^3$)되어 실내공기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은 상온에서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하는 유기화합물의 총칭으로 호흡기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음.

'벤젠'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일종으로 피부 및 호흡기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거실, 방 등 구획된 공간 별로 농도를 환산할 경우, TVOCs가 가장 많이 검출된 향초 1개 제품은 안방(부피 30㎡), 벤젠이 가장 많이 검출된 인센스 스틱 1개 제품은 거실(부피 58㎡)에서 사용하더라도 관련 권고기준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환기를 시킨 후 실내 공기를 재 측정하였을 때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향초나 인센스 스틱을 사용할 때에는 창문을 약간 열어 두거나 사용 후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스 스틱 대부분 표시기준 부적합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 년 월'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센스 스틱은 조사대상 10개 중 8개 제품이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향초 및 인센스 스틱 연소 시 유해물질 방출량 기준 마련 ▲인센스 스틱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향초 및 인센스 스틱 연소 시 발생하는 연기를 직접 흡입하지 말 것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을 피하고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반드시 환기할 것 ▲화재 예방을 위해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향초 · 인센스 스틱의 안전한 사용 방법



1. 제품 구입 시 자가 검사표시 등 표시사항 확인

- 향초·인센스 스틱의 경우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자가 검사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품 구입 시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안전한 제품을 구매한다.

* 2016. 9. 30. 이전 생산 제품의 경우 '자율안전 확인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 확인 표시

2.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반드시 환기

- 밀폐된 장소에서 향초·인센스 스틱의 사용을 피하고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반드시 환기한다.

3. 사용 시 발생한 연기 직접 흡입 피할 것

- 향초·인센스 스틱 사용 시 발생한 연기를 직접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직접적인 흡입은 하지 않는다.

4. 유·소아 및 반려동물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 향초·인센스 스틱을 유·소아와 반려동물이 먹거나 만지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5. 가연성 물건 근처에서 사용 자제

- 사용 시 향초의 불꽃이나 인센스 스틱의 재가 가연성 물건에 닿을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연성 물건 근처에서의 사용은 자제한다.
- 향초·인센스 스틱용 홀더 받침을 사용하여 화재 발생을 예방한다.

6. 향초 사용 전 심지 다듬기 필요

- 길거나 구부러진 심지는 고르게 연소되지 않아 그을음이 발생하거나 촛농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하기 전 약 6mm로 심지를 자르고 사용한다.

※출처 : National Candle Association, <http://www.incensewarehous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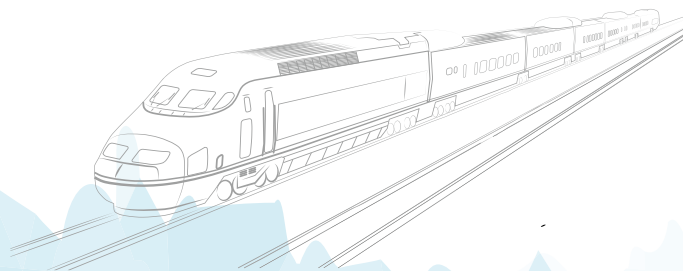
기 차

Writer 이 유 빈 원자력전기기술그룹 이상현 차장 자녀

칙칙폭폭 기차
우리 엄마, 아빠
타고 있는 기차
서울로 갈까?
김천으로 갈까?
김천으로 가자. 칙칙폭폭

덜컹덜컹 기차
할아버지, 할머니
타고 있는 기차
마산으로 갈까?
부산으로 갈까?
부산으로 가자. 덜컹덜컹

시끌시끌 기차
나랑 우리 동생
타고 있는 기차
학교로 갈까?
유치원으로 갈까?
아냐 아냐, 둘 다 싫어!
놀이동산으로 가자. 들썹들썹



봄이 오는 다섯 걸음

봄별 좋은 따스한 오후날에 강가로 나서 봅니다
봄 햇살 품은 산계곡은 산들 바람을 만들어 내고
산들 불어오는 강바람에는 물 비린내가 앞서가고
무성히 자란 강가 갯버들은 은빛 털옷을 입고
강둑 아래 둔덕 얼음은 녹아 돌틈 사이로 흐르고
진즉 자리잡은 물참개나물은 새싹을 보듬어 가고
다리가 저리도록 쪼그리고 앉아 봄을 맞이 합니다
봄이 계절 속으로 다섯 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글 · 사진 | 김영규 품질안전환경처 부장

